

## 日·蘇 철새等 保護條約批准

### 황새, 큰독수리等 287種을 捕獲禁止

北海道接境 4個島 領土紛爭으로, 그동안 批准이 늦어졌던, 『日·蘇 철새(候鳥)等 保護條約』이, 署名한지 15년만에 發効하게 되었다.

지난 12月20일에 있었던, 日·蘇 外相會談에서 兩國 外相이 批准書를 交換함으로써 正式으로 同條約이 締結된 것이다.

蘇聯領土內에 棲息한다고 主張한 鳥類中에서 一部를 修正하고 “保護對象리스트”에서도 除外케 함으로써, 日本도 이를 받아 들여 이번에 閣議를 通過시켰다.

이 條約은 1973年 10月 蘇聯의 그로미코 外相과 日本의 大平外相이 모스크바에서 署名, 日本은 다음해인 1974年 4月에 國會의 同意를 얻었고, 蘇聯은 同年10月 聯邦最高會議 幹部會에서 承認을 받았다. 그러나 蘇聯이 提出한 滅種의 危險이 있는 『特殊鳥類 리스트』에 “에소시마 올빼미” “일본개독수리”(큰 독수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蘇聯의 領土인 南千島의 4個島(하보마이, 시고당, 에도로후 구나시리)齒舞, 色丹, 択捉, 國後에 棲息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南千島를 包含, 上記 北方 4島를 日本 固有의 領土라고 主張하는 日本은 難色을 表示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후 日·蘇 關係惡化도 있어서 條約締結은 自然히 지연되어 왔었다.

그런데 財団法人 日本野鳥會와 蘇聯科學아카데미는 심포지움 그리고 共同調査等を 계속 進行하는 동안 再開機運이 높아졌으며, 蘇聯側도 提出한 리스트에서 문제의 큰독수리를 削除하였고, “에소시마 올빼미”의 棲息領域에 대해 서로 修正하고 리스트의 交換을 끝내므로써 條約이 批准케 된 것이다.

이번에 蘇聯側이 棲息分布에 대해서는 南千島뿐만 아니라, 사하린 沿海州에서 棲息한다고, 하였고 큰독수리에 대하여는 棲息分布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過去의 主張을 修正하고 리스트에서도 除外

하였다.

日本은 이것으로 領土問題가 解決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政治改革의 表現으로 보고 日·蘇 關係改善을 위해 사세바루나제 外相의 日本滯留中에 이提案을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이번의 이 條約締結에 따라 捕獲等이 禁止되는 철새는 白鳥, 기러기 種類, 오리 種類, 개똥지빠귀(백설조) 황새, 두루미, 도요새, 큰독수리 등 287種으로, 시베리아에서 日本으로 渡來하는 철새의 80%를 占하고 있다.

다만, 기러기 種類, 오리 種類에서 狩獵鳥獸에 指定되어 있는 것은 狩獵期間中에 限해, 保護對象에서 除外된다.

또한 保護鳥 中에서 特히 滅種의 危險이 있어 輸出入等 禁止된 特殊鳥類로는, 蘇聯側은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29種類를, 日本側은 이미 國內에서 讓渡, 輸出入을 規制한 「特殊鳥類」에 指定된 따오기 두루미, 등 6種類와 황새, 도요새를 包含한 28種類를 새로이 「特殊鳥類」로 각기 追加指定하고, 相互 通知하였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철새들의 實態에 對하여 資料의 交換, 共同調査, 研究計劃, 棲息環境의 保護 對策等이 活潑히 進行될 것으로 보고 있다.

現在 日本이 철새 保護條約을 締結한 나라는 美國, 濠州, 中國, 다음으로 蘇聯이 4번째 나라인데, 그래서 日本에 渡來한 철새 98%가 이 條約에 따라 保護를 받게 될 것이다. (盧)

#### 알림

뽀지圖案懸賞募集마감연장=현재까지 접수된 12건을 포함하여 앞으로 1년간 더 응모기간을 연장하고 현재까지 응모해주신분에게는 본회지를 1년간 무료증정합니다.